

미국, 한국, 중국 일간지의 '9·11 테러' 뉴스보도 비교분석*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미라

(이화여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9·11 테러참사 사건에 대한 미국, 중국, 한국의 주요일간지 보도 비교분석 결과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가 국제 분쟁에 관한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뉴스 프레임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기사량에서 미국의 <뉴욕 타임즈>, 한국의 <조선일보>는 9·11 테러사건 발생직후 신문의 거의 전 지면을 할애했 반면 (382건, 192건) 중국의 인민일보는 단 32건의 기사만을 보도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상대적으로 축소 보도하였다. 뉴스 내용에서도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는 9·11 테러와 아프간 공습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대로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전쟁행위' 그에 따른 '필연적인 미국의 군사보복과 응징'의 틀을 통해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정당화시킨 반면, 중국의 <인민일보>의 경우에는 9·11 테러와 관련해서는 중립적 시각에서 사실보도만을 하고, 미국의 공습과 관련해서는 무고한 아프간 민간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부각함으로써 현저하게 다른 뉴스 프레임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구성방식에서는 세 나라의 일간지 모두 특정 사건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전하는 일화 중심적 뉴스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9·11 테러, 이데올로기, 프레임 분석, 국제분쟁보도, 틀짓기

* 본 연구는 두뇌한국21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 문제 제기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국방성의 항공기 충돌 테러는 그 방법이나 피해규모에 있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고, 10월 8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공격으로 이어지면서 줄곧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심장부가 공격받았다는 뉴스가치와 함께,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110층 짜리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며 화염에 휩싸이고 시뮬레이션 처리를 한 듯 거대한 건물이 주저앉는 장면 등의 영상적 가치 때문에 세계의 언론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우리 언론들도 사상 초유의 미국 9·11 테러참사와 관련, 전혀 없는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작년 9월 11일 밤 10시 10분 경, SBS는 국내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드라마 <여인천하> 방송도중 뉴욕 세계무역센터의 항공기 충돌사건 속보를 자막으로 보도했다. 미국의 CNN 방송이 9시 49분 경 속보를 내보낸 지 불과 20여분만에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발생한 참사가 한국의 안방까지 전해진 것이다. 이어서 10시 47분부터 MBC는 발빠르게 방송 중이던 드라마 <선희 진희> 등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 3사중 가장 먼저 <뉴스특보>를 진행하는 순발력을 보였으며, 방송3사는 그 이튿날까지 종일방송체제에 돌입, 시시각각 흘러나오는 속보와 특파원을 통한 현지 분위기를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국내 신문들 역시 12일 9·11 테러관련 뉴스를 일제히 1면 톱기사로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연일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여 외신이 쏟아놓는 속보와 생생한 사진을 게재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와 같이 국내 언론이 테러참사와 관련 생생한 현장화면과 함께 신속한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성파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9·11 테러참사관련 보도에서 국내 언론이 보여

준 생생한 영상전달과 속보전만으로는 우리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테러 참사 직후에 나왔던 몇몇 연구들은 우리 언론이 단순히 미국적 시각에서 '전쟁'과 '테러'를 규정하고, 전쟁과 테러라는 뉴스가 갖는 상업적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경마식 보도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적 결과들을 제기하였다.¹⁾ 9·11 테러보도 역시 테러사건이 뉴스화 되는 과정에서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뉴스가 특정방향으로 틀지워졌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국제뉴스보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언론인 개인의 가치와 신념, 게이트 키퍼과정에서의 조직적 관행, 뉴스가치, 기술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9·11 테러와 같은 국제 분쟁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뉴스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기되고 있다.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일한 분쟁 사건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틀 지워진다는 것이다. 허만과 촘스키(Herman & Chomsky, 1988)는 미국은 끊임없이 자국의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을 통제해 왔으며, 이런 미국 언론의 시각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켜 왔음을 지적했다.

이번 9·11 테러보도에서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언론들은 세계 무역센터의 비행기 충돌장면, 거대한 건물의 붕괴장면, 흙먼지와 피로 뒤범벅이 된 시민들이 대피하는 장면 등 테러로 인한 미국의 피해보도에 집중하면서 미국 언론과 거의 흡사한 보도 태도를 보여주

1) 김창룡(2001, 174쪽)은 핵무기 사용에 따른 인근 국가의 위협성과 그 정당성 여부, 국제사회 대응 등에 대한 비판은 없고 응징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 되는 듯한 보도 태도는 한국방송인지 미국방송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듯 했다고 지적했다. 반현(2001) 역시 이런 언론의 태도를 주체성을 잃은 '우편배달부식' 보도라고 비판했다. 정재철(2001)도 KBS의 <9시 뉴스>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미국의 입장에서 '군사보복주의'라는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었으나, 미국과 이데올로기가 다르며 외교적으로도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는 중국의 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보도를 하는 등 다른 보도태도를 보여주어 각국의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에 따라 뉴스가 다르게 구성됨을 또다시 확인 시켜주었다.

미디어가 사건을 어떻게 틀 지워 보도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미디어가 구성한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번 사건처럼 정치, 경제, 외교, 군사문제 등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사람들은 이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디어가 구성하는 현실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존해 사건을 규정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9·11 테러참사와 관련, 우리 언론이 보도를 통해 어떤 틀을 구성해 냈는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9·11 테러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오랫동안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던 반면 역사적으로 이슬람 국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그에 대한 정보나 이해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9·11 테러와 관련, 우리 국민들의 현실 인식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9·11 테러참사와 응징수단으로 미국이 선택한 아프가니스탄 ‘무력 공격’과 관련해서 언론이 그려내는 틀은 중요한 국제적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현실 인식과 여론, 그에 따른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11 테러 참사’와 관련 미국의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 미국과 오랜 우방으로 외교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우리나라의 <조선일보>와 냉전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미국과 외교적 이해관계를 달리 해왔던 중국의 <인민일보>, 세 나라 주요 일간지의

뉴스 틀(frame)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 분쟁과 관련 자국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같은 사건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 언론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에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사상 초유의 테러참사와 미국의 무력 공격과 관련한 이런 신문 뉴스의 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국제 분쟁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와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증함은 물론 우리 언론이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언론 본연의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 관련 문헌연구

1) 뉴스의 현실 구성과 국제 분쟁 보도에 관한 논의

뉴스를 현실 구성적 시각에서 연구한 학자들(Gitlin, 1980; Tuchman, 1978)은 뉴스의 생산과정을 하나의 사회적 구성으로 보고, 뉴스는 현실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종사자와 조직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 경험적으로 형성된 틀 위에서 새롭게 재구성된 가공된 현실로 보았다. 이는 미디어 종사자와 미디어 조직은 무정형화된 사건들을 취사선택하고, 일정한 특성을 부여하게 되는 데, 곧 뉴스는 이 틀에 의해 선택되고 특성화되어 의미를 갖게 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뉴스를 상징의 조작자로 보았던 리프만(Lippman, 1922)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사회는 사람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객관적 현실이 아니며, 머릿속에 상(image)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부어스틴(Boorstin, 1961)은 미디어를 통한 현실은 꾸며지고 의도된 모조품과 같은 것이라는 의사환경(pseudo-environment)과 의사사건(pseudo-event)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 후 보다 구체적으로 버거와 러크만(Berger & Luckmann, 1966)은 “현실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지식사회학은 현실이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이 존재함을 제안했다. 아도니와 메인(Adoni & Mane, 1984) 역시 현실(reality)의 유형을 사람들이 사실로서 경험하는 객관적 현실, 미술, 문학, 미디어 내용물 등과 같이 객관적 현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의 형태로 구성된 상징적 현실, 객관적, 상징적 현실이 투입된 결과 각 개인이 구성하게된 그 자신의 주관적 현실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특히 미디어는 테러나 전쟁과 관련한 국제 분쟁의 경우 일정한 방향으로 현실을 구성하게 된다. 촘스키(Chomsky, 1979)는 각 시기별 국제 분쟁에 관한 미국 언론의 보도를 중심으로 미디어가 자국의 외교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허만(Herman, 1988)과 함께 미국 언론이 소련의 아프간 침공과 체코, 헝가리에 대한 개입을 비난한 반면 베트남과 그라나다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도주의자(humanitarian)’라는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몇 가지 필터에 의해 걸러진 미디어 내용은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슬레징거(Schlesinger, 1991) 역시 정치적 폭력행위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정부 당국의 시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라며, 우리가 주어진 국면과 인과관계 안에서 정치적 폭력에 대한 특정한 형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헨(Cohen, 1963)은 국제 뉴스보도에서 미디어 및 언론종사자와 미

국의 외교정책 및 당국자들간의 관계를 연구, 그들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언론이 무엇보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해 생각해야 하는지(what to think about)를 전달하는데 성공적이라며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을 강조했다. 국제 분쟁과 관련한 뉴스보도가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 및 외교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의를 뒷받침해 주는 실증적 연구들도 적지 않다. 이를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렘바(Zaremba, 1988)는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가나, 영국, 일본, 싱가포르, 소련, 미국의 뉴스보도들을 분석하여, 자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동맹관계를 토대로 분쟁에 관한 인식과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제시했다(Malinokina & McLeod, 2000, p. 39, 재인용). 다우닝(Downing, 1988)은 아프간 분쟁에 관한 구소련 미디어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소련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아프간 정부의 요청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도됐고, 소련의 군사적 책략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간 개입에 관한 소련의 보도와 1980년 엘살바도르 분쟁에 관한 미국의 보도내용을 비교했는데, 미국과 소련 언론 모두 군사력에 의한 파괴나 사상자 규모,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도는 회피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어 자국에 호의적으로 사건들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이후 팔레츠와 빈슨(Paletz & Vinson, 1994)은 KAL 007기의 소련 전투기에 의한 격추사건에 관한 라오스, 인도, 노스캐롤라이나, 파키스탄, 니카라과, 소련의 뉴스보도를 분석, 역시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친밀 관계에 따라 그들의 목적에 맞게 사실의 선택과 해석, 헤드라인의 전략적 사용, 내용의 틀이 구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미디어가 테러와 전쟁 등 국제 분쟁과 관련해서 자국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현실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뉴스를 구성

하는 구체적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프레임(frame)이며, 이 프레임에 대한 분석은 뉴스가 특정이슈를 어떻게 의미 짓고 있는가 하는 담론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특히 이 프레임 분석은 전통적인 내용분석과 달리 뉴스 텍스트를 단순한 객관적 자극으로 인식하지 않고, 의미 구성을 위해 개개 행위자들(저널리스트, 수용자, 정보원)과 상호 작용하는 조직된 상징 장치들의 구성으로 보고, 수용자와 독립된 텍스트를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뉴스 텍스트의 생산,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연구를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Pan & Kosicki, 1993, p. 58). 또한 엔트만(Entman, 1993)이 주장한 것처럼 기존의 내용분석이 텍스트 내용을 부정적인 용어와 긍정적인 용어로 분류하여 합산한 후 지배적인 의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텍스트 요소의 현저성(salience)을 고려하지 못하고, 가장 현저한 메시지 프레임과 수용자의 스키마와의 관계를 간과해온 것과는 달리 프레임 분석은 실제로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뉴스의 이야기 구성방식과 내용을 분석해 내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2) 뉴스보도와 프레임에 관한 연구

뉴스에서 프레임이란 미디어가 현실을 구성하는데 있어 어떤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일정한 방식으로 의미 짓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투크만(Tuchman, 1978)은 뉴스는 세상을 향하여 나있는 창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그 창의 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인식하게 된다는 미디어의 사회적 현실 구성과 관련한 프레임 개념을 사용했다. 원래 미디어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이 틀 개념은 고프만(Goffman, 1974)이 제안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행동을 연극적 은유로 분석하였는데, 그에게 프레임이란 “사건적어도 사회적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관여가 지배하는

조직의 원칙"이다(Goffman, 1974, p. 10). 따라서 프레임이란 사건과 사건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관여를 지배하는 조직화의 원리이며, 일상생활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들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는 언론이 현실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식에 관심을 둔 사회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 기틀린(Gitlin)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뉴스 프레임이 사건을 뉴스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으며, 결국 "미디어 프레임은 인식과 해석과 제시 그리고 선택과 강조와 배제의 지속적인 패턴으로서, 상징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담론을 상투적으로 조직한다"고 하였다(Gitlin, 1980, p. 7).

이런 사회학적 접근과 별도로 프레임 개념은 뉴스 보도 양식이 수용자의 선택과 해석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 심리학 분야에서도 사용되었다. 아옌가(Iyengar)는 틀짓기(framing)란 용어를 사용, 틀짓기란 "판단 및 선택의 문제를 표현하거나 제시하는 데서의 미묘한 변경"을 의미하며, 틀짓기 효과란 "그러한 변경으로부터 야기된 의사결정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Iyengar, 1991, p. 11). 미디어가 생산해낸 담론과 여론의 변화에 주목한 이들의 연구(Iyengar & Simon, 1993)는 미디어의 담론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담론임을 말해 주는데, 갠슨 등(Gamson, et al., 1989)은 패키지(package)라는 개념을 통해 미디어 담론을 이슈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련의 상징적 기재로 설명하고, 여기에는 은유, 예시, 캐치프레이즈, 묘사, 시각적 이미지 등의 장치가 사용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엔트만(Entman, 1993)은 틀짓기에는 선택(selection)과 현저성(salience)이 수반되는 데, 프레임이란 결국 현실의 어떤 측면을 선택해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안에서 더욱 현저하게 부각시키

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수용자는 특정 정보에 더 주목하고 기억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결국 사회적 현실 구성과 관련한 이런 틀이 기술된 사건을 특정한 문제로 정의하고,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해설하며, 또한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과 해결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기능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뉴스 프레임이란 학자마다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과 용어를 조금씩 달리하고는 있지만 이준웅(1997)의 정의처럼 “독자나 시청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뉴스를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방식”, 즉 뉴스틀이란 기능적으로 그 독자나 시청자의 이해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끄는 뉴스 메시지의 특성이며, 실제적으로 다양한 메시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조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프레임의 개념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네 단계인 커뮤니케이터, 텍스트, 수용자, 문화에 모두 걸쳐 작동하며, 뉴스 프레임과 관련한 연구 또한 이상의 네 영역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김훈순, 1998, 146쪽). 이 중에서 본 연구는 9·11 테러참사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미국의 아프간 무력공격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미국, 한국, 중국의 신문뉴스의 틀, 즉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틀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텍스트에 나타나는 틀짓기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뉴스 프레임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뉴스의 이야기 구성방식, 즉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와 이야기의 내용에 초점을 둔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뉴스의 이야기 구성방식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아엔가(Iyengar, 1991)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아엔가(Iyengar, 1991)는 뉴스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 중심적 프레임(thematic frame)이 있다고

보았다.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어떤 이슈를 특정사건이나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성하고, 그 결과로서 드러난 징후적 사건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며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평가를 포함,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원인을 진단하도록 도와준다. 또 하나 두 프레임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책임의 귀인 문제이다. 즉, 일화 중심적 프레임의 경우 특정 이슈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나 특정집단으로 돌리는 반면,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보다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구조적인 배경에 책임을 돌린다고 한다. 아옌가(Iyengar, 1991)는 그 틀에 따라 빈곤, 실업, 범죄, 테러리즘, 인종적 불평등, 이란 콘트라 사건에 관한 뉴스틀을 분석하였는데, 빈곤과 범죄, 국제 테러리즘은 일화 중심적 틀을, 인종적 불평등은 두 가지 틀을 모두, 실업의 문제만 주제 중심적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뉴스가 일화 중심적 틀을 사용하느냐 주제 중심적 틀을 사용하느냐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특정 이슈에 대한 책임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는 책임 귀인의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91년의 연구에 이어 아옌가와 사이먼(Iyengar & Simon, 1993)은 1991년에 있었던 걸프전에 관한 미국 언론의 뉴스 보도와 국민의 여론 변화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미국이 일화 중심적 프레임을 지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관한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뉴스 텍스트의 내용에 중점을 둔 프레임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1960년대 미국 대학생들의 신좌익운동에 대한 뉴스미디어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기틀린(Gitlin, 198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뉴스매체가 어떠한 틀로 학생운동을 규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프레임 기제(frame devices)로 운동권 수와 운동 효용성에 대한 과소 평가를 통한 사소화(trivialization), 반전운동을 극우 또는 신나치단체와 같

은 극단주의자로 몰고 가는 양극화(polarization), 내부 갈등이나 일탈적, 대표성이 없는 시위자들의 모습을 부각한 한계화(marginalization) 등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와 제도권의 시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자국의 이데올로기, 외교적 이해관계와 국제 분쟁 보도에 관한 대표적인 프레임 연구로는 엔트만(Entman, 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1983년에 발생한 구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과 1988년 미 해군함정에 의한 이란기 격추 사건에 대한 <타임>(Time), <뉴스위크>(Newsweek), <CBS 이브닝 뉴스>(CBS Evening News),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등 미국 언론의 뉴스들을 비교 분석,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뉴스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엔트만(Entman, 1991)은 두 사건과 관련된 뉴스들을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뉴스보도의 헤드라인, 그래픽, 라벨링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 언론은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의 경우 행위자로서 구소련 당국을 부각시키고,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지 그래픽과 “의도적(deliberate)”, “격추(attack)” 라는 단어의 반복 사용으로 사건을 ‘도덕적으로 잔혹한 사건’으로 규정지어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이끌어냈음이 밝혀졌다. 반면 미국의 이란기 격추사건에 대해서는 수동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행위자로서의 미국을 은폐하고, “실수(mistake)”, “비극(tragedy)”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기술적 실수라는 점을 부각시켜 도덕적 평가를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판과 코시킴(Pan & Kosicki, 1993)은 뉴스 담론이란 개념을 사용해 뉴스 프레임의 효과를 언급했는데, 뉴스 프레임을 구성하는 틀장치로 구문론적 구조(syntactical structure), 이야기 구조(script structure), 주제 구조(thematic structure), 수사 구조(rhetorical structure)를 제안했다. 그

리고 이를 토대로 미국 사회의 대립적 이슈의 하나인 캔사스주의 낙태반대 운동에 관한 뉴스 프레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1) 낙태반대 운동자들을 기존 법질서에 대한 전복을 원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2) 또한 종교적 광신도들로 이해될지 모르며 3) 호전적이고, 급진적이며, 대립적으로 그려지고 4) 주창자들이 서약을 계속함으로써 유사한 대립이 계속되는 것 같다는 갈등과 대립의 틀(conflict-confrontation)로 보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사상 초유의 미국 테러참사와 미국의 아프간 무력 공격에 대한 미국, 한국, 중국 일간지의 뉴스보도의 틀 분석을 통해서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서 각 나라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유형의 뉴스틀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중들의 현실 인식에 미칠 영향에 관해 평가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미국 테러참사와 미국의 아프간 무력 공격에 대한 미국, 한국, 중국 신문의 틀짓기 방식(형식)은 무엇이며, 이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미국 테러참사와 미국의 아프간 무력 공격에 대한 미국, 한국, 중국 신문의 보도내용에 나타난 지배적 뉴스틀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를 보이고, 이를 위해 사용된 프레임 기제들(frame devices)은 무엇인가?

셋째, 이런 뉴스 틀은 대중에게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원인과 결과를 해석하며, 어떤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어떤 처방을 제시하는 기능을 했는가?

마지막으로 미국 테러 참사와 아프간 공격에 관한 3국의 뉴스 프레임 비교를 통해 우리 언론이 국제적 사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지 평가하고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4.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9·11 테러보도 분석을 위해 미국, 한국, 중국 세 나라의 주요 일간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3국을 선택한 것은 사건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신봉, 전통적으로 이데올로기나 외교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이며, 이에 반해 중국은 비록 개방화의 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미국과는 아직까지도 이데올로기나 외교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뉴욕 타임즈>를, 한국은 <조선일보>, 중국은 <인민일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세 개 신문을 선택한 것은 발행 부수나 영향력으로 볼 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방송뉴스보다 일간지를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방송뉴스는 속보성과 시간의 제한, 영상을 추구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공정한 뉴스들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신문은 그나마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뉴스들의 구성이 기대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분석 시기는 9·11 테러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2001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이 시작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전체 관련기사²⁾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뉴

육 타임즈>의 경우 총 382건, <조선일보>의 경우 총 195건, <인민일보>의 경우 32건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분석방법

이미 이론적 논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내용 분석은 텍스트 요소의 현저성과 텍스트 프레임과 수용자의 스키마와의 관계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커뮤니케이션 텍스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현저성과 그에 따라 수용자가 실제 선택하게될 메시지에 관한 분석에 유용한 프레임 분석을 분석의 틀로 사용했다.

프레임 분석을 위한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첫째, 각 국의 신문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틀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신문별 전체 기사 건수와 사진 게재 건수, 그리고 1면에 게재된 기사의 크기를 분석하였다.³⁾ 둘째, 전체 기사의 내용을 읽고 뉴스의 구성방식(형식)에 있어서 일화 중심적 프레임(episodic frame)인지 주제 중심적 프레임(thematic frame)인지를 분석하였다.⁴⁾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사건의 현황,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화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주로 일회성 스트레이트 뉴스들 대부분이 해당된다. 피쳐 뉴스의 경우에도

2) 미국의 테러와 공습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각국 정부의 발표내용, 대응, 경제동향 기사까지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단순한 희생자 소개 등의 단신은 제외됐다.

3) 1면 기사의 양만을 분석한 것은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 <인민일보>의 평균 발행면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게재면을 분석하는 것이 기사의 중요도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9월 12일을 기준으로 볼 때 <뉴욕 타임즈>는 96면, <조선일보>는 52면, <인민일보>는 12면을 발행했다.

4) 뉴스구성방식 프레임 분류를 위해서 2명의 연구자와 중국어에 능통한 1명의 연구원이 함께 토의하면서 뉴스구성방식을 분석하였다.

소방관들의 구조활동에 관한 이야기, 당시 빌딩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등 사건의 단편만을 다룬 뉴스들은 일화 중심적 프레임에 해당된다.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사건에 대한 분석보도로 사건의 원인과 배경,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책임을 보다 역사적, 구조적 맥락에서 찾게 하는 뉴스보도를 의미한다. 테러사건의 배후와 이슬람 과격단체에 대한 분석적 보도, 중동사태에 대한 역사적 과정에 대한 해설보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의 테러공격에 대한 보도 중 미국 정부의 입장, 전쟁 수행 예측보도들이 주제 중심적 프레임보도에 해당된다. 셋째, 각 신문의 관련 기사들을 대상으로 신문의 뉴스틀을 구성하는데 있어 주요 기재로 작용하는 헤드라인의 내용과 사진의 내용, 사건이나 행위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와 수식어 등을 분석함으로써, 그것들이 일관되게 의미하는 지배적인 뉴스틀을 도출하였다.

5. 연구 결과

1) 기사량의 차이에서 나타난 뉴스 프레임

분석결과 9·11 미국 테러참사와 아프간 공습에 대한 미국, 한국, 중국의 신문뉴스는 우선 그 기사량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한국의 일간지는 많은 양의 기사와 관련 사진을 게재하고 연일 1면 톱기사로 이번 사건을 다룸으로써 9·11 테러를 국제적인 중대 사안으로 틀지운 반면 중국의 <인민일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이 사건을 다뤘다. 먼저 테러참사 발생 직후 3일(2001. 9.12~9.14.)과 미국의 아프간 공습 직후 3일(2001.10. 8.~10.10.)동안의 관련기사 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뉴욕 타임즈>의 경우 하루 평균 60여건이 넘는 기사가 게재돼 총

382건, <조선일보>의 경우도 195건이나 게재되었다. 이에 비해 아직도 미국과 외교적 긴장관계에 있는 중국의 <인민일보>의 경우는 하루 평균 5건으로 총 32건의 기사만이 게재되었다. 특히 어떤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틀짓는 데는 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 9·11 테러보도와 관련해서는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들 또한 기사 못지 않게 세계무역센터 충돌, 붕괴장면 등 생생한 현장사진을 실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의 경우 6일 동안 하루 평균 37건, 총 225건의 사진을 게재했고, <조선일보> 또한 무려 102건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인민일보>의 경우에는 역시 사진도 단 7건만을 게재, 극단적인 대조를 보였다.

<표 1> 분석대상 3개 일간지의 관련기사 및 사진 건수 비교

날 짜	뉴욕 타임즈		조선일보		인민일보	
	기사	사진	기사	사진	기사	사진
9. 12	69	52	21	17	5	3
9. 13	72	41	56	33	4	-
9. 14	81	44	51	24	6	1
10. 8	52	29	17	7	5	1
10. 9	56	29	35	15	6	1
10. 10	57	30	15	6	6	1
계	382	225	195	102	32	7

또 특정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틀 짓는 데는 신문이 1면에서 그 기사를 얼마나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지가 영향을 미친다. 분석기간 6일 동안의 1면 관련기사 크기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역시 당사국인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가장 많은 8,657cm²의 지면을 할애했으며, <조선일보>의 경우에도 그에 못지 않은 6,021cm²를 9·11 테러관련 기사에 할애했으므로써 이번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9·11 테러가 발생한 이튿날 9월 12일자 신문의 경우 아예 1면 광고를 생략하고 1면 전부를 테러관련 기사로 채울 만큼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분석기간 6일 내내 관련 기사가 1면 중요 기사로 다루어졌다. 반면 <인민일보>의 경우는 테러 발생 다음날인 9월 12일과 13일에만 1면에 테러관련 기사가 실렸으며, 상대적으로 6일 동안의 1면 기사량이 381cm²에 그쳐 <조선일보>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분석대상 3개 일간지의 1면 관련 기사량 비교

(단위: cm²)

날 짜	뉴욕 타임즈	조선일보	인민일보
9. 12	1,515	1,700	228
9. 13	1,482	1,204	153
9. 14	1,579	1,141	-
10. 8	1,495	935	-
10. 9	1,343	589	-
10. 10	1,243	452	-
계	8,657	6,021	381

이상의 분석결과는 미국과 관련한 국제 분쟁 보도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한국 신문의 경우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간 공습을 중대 사안으로 틀지운 반면,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중국 신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같은 사건을 축소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각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우선 기사량을 통해 같은 사안이 다르게 틀지워질 수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2) 구성방식: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옌가와 사이먼(Iyengar & Simon,

1993)은 뉴스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서의 프레임에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 중심적 프레임(thematic frame)이 있다고 보았다. 아옌가와 사이먼의 프레임의 형식적 특징에 따른 분류로 볼 때 <뉴욕 타임즈>, <조선일보>, <인민일보> 등 3국의 일간지 모두가 미국 테러참사와 관련 매일 매일 제공되는 사건 전개과정과 미 FBI 등의 수사 속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에피소드 등 일화 중심적 뉴스들을 견지했다. 특히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의 경우 뉴욕 현장소식과 함께 구조현황과 구조대원들의 이야기, 그 과정에서 들려오는 피납기 희생자들의 마지막 통화내용, 자원봉사행렬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 부시가 아버지 전 부시대통령에 이어 또 한번의 전쟁을 치르게 됐다는 등의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과는 무관한 일화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졌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미 테러사건과 비교해본 '테러영화'라는 특집을 기획, 이번 사건이 영화 속 테러와 닮은 점, 테러 소재 소설들을 소개하는가 하면, 이번 테러로 희비가 엇갈린 유명인들을 소개하는 등 흥미 위주의 보도들도 적지 않았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이 개시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3일 동안의 뉴스들을 분석한 결과 역시 프레임 형식에 있어서는 변화 없이 일화 중심적 프레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공습 전개상황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신에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에 대한 소개가 많았다.

분석결과 일화 중심적 프레임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언론이 속보성과 테러와 전쟁이라는 사건의 속성 중에서 상업적 뉴스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사건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심층 보도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 아옌가(Iyengar, 1991)는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과 주제 중심적 뉴스 프레임을 나누는 중요한 특성으로 책임 귀인문제를 들었다. 그런데 미국 테러참사와 관련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처음부터

뚜렷한 물증 없이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 탈레반 정권을 지목 하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 언론들은 사건 이튿날부터 오사마 빈 라덴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뉴욕 타임즈>나 <조선일보>가 특정 사건의 책임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찾기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 돌리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을 견지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인민일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사량이 작아 사건의 추이와 각국의 반응을 보도하는데 그쳤지만 오사마 빈 라덴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도 않았으며, 희생자들의 사연이나 핸드폰 통화 내용 등의 일화 등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뉴욕 타임즈>나 <조선일보>가 보여준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중들의 사건의 본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배제시킴으로써 결국 왜곡된 현실을 구성해 내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3) 뉴스내용에 나타난 지배적 뉴스틀

앞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미국 9·11 테러참사와 아프가니스탄 공습과 관련해 미국, 한국, 중국의 신문들이 어떤 뉴스틀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신문 뉴스프레임 구성의 주요 기제로 작용하는 헤드라인, 사진, 사건 및 행위자를 지칭하는 용어와 수식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3개 신문의 지배적인 뉴스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 김훈순은 “프레임이란 공공이슈에 대한 서사(narrative)를 구성하여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김훈순, 1998, 152쪽). 이것은 텍스트 내에서 특정 영상이나 언어적 요소 등을 배열하고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뉴스가 구성하는 현실, 뉴스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분석결과 사건의 규정과 해석, 처방의 제시에서 미국의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의 경우 거의 유사한 뉴스틀을 나타냈으며, 중국의 <인민일보>만이 다른 뉴스틀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1) 사건의 규정: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전쟁행위(선과 악의 전쟁)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사상 초유의 항공기 충돌 테러와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상징인 국방부 건물에 대한 테러 공격을 놓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것을 단순한 테러가 아닌 전쟁행위(the acts of war)로 규정하고, 테러의 주체들을 악(evil)으로 지칭하며 합당한 보복을 선포했다. 그런데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의 경우 사건 초기 부시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밝힌 이 시각을 가장 지배적인 뉴스틀로 유지하였다. 연일 비행기 충돌장면과 아비규환의 붕괴현장, 피해 정도를 말해 주는 헤드라인과 사진, 흠먼지를 뒤집어쓰고 대피하는 시민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유가족 등 무고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테러의 잔학함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번 테러가 인류 전체, 선을 상징하는 미국에 대한 악의 전쟁행위라는 틀에 입각, 현실을 구성하였다. 특히 <뉴욕 타임즈>의 경우 피해자 사진을 싣는데 있어서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여성과 공포심에 경악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모습을 주로 게재함으로써 테러의 주체들을 '악'으로 규정했다. 테러발생 직후인 9월 12일의 <뉴욕 타임즈> 1면 톱기사 헤드라인이 'U.S. ATTACKED'였는데 <조선일보> 역시 같은 날 1면 톱기사의 헤드라인이 '미국이 공격 당했다'로 똑같았다.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한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인데, <조선일보>는 그 이후 테러관련 기사들을 <공격당한 미국>이라는 통일된 부제 하에 게재,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에 비해 중국의 <인민일보>는 '미국 뉴욕, 워싱턴 심각한 테러 나다' '미국 연속 공포 습격' 등 비교적 객관적인 표제를 통해 이번 사건을

규정하고, 단지 중국과 많은 나라들이 테러를 비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 밝혀지지 않은 범인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다. 또 충돌 장면과 피해현장 사진이 4건이 게재됐지만 모두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테러의 잔학성을 보여 주는 데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이번 9·11 테러사건을 규정하는데 사용된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 그리고 <인민일보>의 대표적인 헤드라인 내용과 사진, 지칭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사건을 규정하는데 사용된 주요 기제들

구분	뉴욕 타임즈	조선일보	인민일보
헤드라인	president vows to exact punishment 'evil'/ Rescue workers rush in, and many do not return/ the war against America-unfathomable attack/ a city of quiet: nothing is sane one day after/ as witnesses to tragedy, students confront fears	출근길 맨해튼 아비규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 공격당한 미국: 공포...절규...아! 뉴욕/ 피의 화요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 지역에서 9월 11일 엄청난 테러가 발생했다/ 미국 연속 공포 습격/ 장쩌민 주석 부시 대통령과 통화
사진	충돌장면/ 아비규환의 붕괴현장/ 창문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여성피해자/ 가족을 찾아 헤매는 유가족들/ 공포에 질린 학생들과 여성들의 표정/추모집회 등	화염에 휩싸인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 공포에 질린 뉴욕시민들/ 골조를 드러난 구조현장/ 창문에 매달려 구조 요청하는 사람들/ 동료들에 의해 후송되는 소방관/ 테러 사망 미 장성 장례식 등	원거리에서 찍은 충돌 장면/ 대피하는 일상적 차림의 뉴욕시민들/ 펜타곤 붕괴 모습
지칭 용어 및 수식어	act of war/ evil/ attacks with extraordinary planning and sophistication / evil, despicable acts of terror/ mass murder 등	악(evil)/ 아내가 이 세상에서 걸어온 마지막 전화 "사랑한다"/ "미국인들의 소중한 자유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부시 성명)/	테러리즘 질책/ 사망자들에 경의/ 뉴욕 워싱턴 아직도 분노중/ 진주만의 한 장면

(2) 사건의 해석(평가): 문명 대 반문명의 전쟁

파월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테러참사와 그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응징을 문명 대 반문명의 전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그의 발언처럼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뉴욕 타임즈>와 우리의 <조선일보> 또한 이번 9·11 테러참사와 미국의 공습에 대하여 '문명'(미국) 대 '반문명'(이슬람)의 전쟁이라는 대립적인 뉴스틀을 구성했다. 먼저 두 신문들은 성숙한 미국과 미국인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하여 테러참사 이후 계속되는 평화적 추모행렬과 자원봉사 행렬,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력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또 비행기 추락직전 테러범들에 맞섬으로써 더 큰 희생을 막고자 했던 미국인 탑승객들의 최후의 순간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반면 아랍,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벌어졌던 반미 시위는 크게 조명하지 않은 채 파키스탄 등지에서 벌어진 반미 시위를 보도할 경우에도 오히려 이슬람인들의 과격성과 극렬함을 보여주는 프레임 기재로 활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9·11 테러참사로 미국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 축포를 쏘며 거리로 몰려나온 파키스탄인들의 사진 등을 게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뉴스 프레임은 궁극적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주축으로 하는 알 카에다 조직 등 일부 이슬람 극렬단체와 범이슬람권을 동일시하는 결과를 가져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보다 정당화해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인민일보>의 경우 9·11 테러에 관한 해석이나 일방적인 도덕적 평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미국의 공습 이후에는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뒷전으로 한 채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공중 식량 투하를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의 인도주의적, 문명적 행동을 드러내 보였다. 특히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은 이 가운데 애국심에 호소, 단결을 외치는 뉴스 프레임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서 <뉴욕 타임즈>는 뉴욕 곳곳에

걸린 성조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시민들의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집중적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간 공습에 대한 해석과 도덕적 평가로서 ‘문명 대 반문명의 전쟁’이라는 뉴스 프레임으로 구성하는데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 등이 사용한 주요 기제들은 <표 4>와 같다.

(3) 사건의 귀결: 필연적인 군사적 보복과 응징(아프간 공격의 정당성)

9·11 테러를 전체 인류에 대한 ‘악’(evil)의 ‘전쟁행위’(the acts of war), ‘문명 대 반문명의 전쟁’의 틀로 구성한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뉴스프레임은 테러 발생 초기부터 금방이라도 미국의 군사적 보복과 응징이 뒤따를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언론이 앞서서 기정 사실화 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공격은 테러 발생 26일 만인 10월 8일에야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부터 <뉴욕 타임즈>는 ‘President vows to exact punishment’, ‘Pentagon weighing plans for retaliation’, ‘administration considers broader, more powerful options for potential retaliation’ 등의 헤드라인을 사용했으며, <조선일보> 역시 ‘미, 범인 밝혀지는 즉시 전면 보복’, ‘미, 대대적 보복공격 태세’, ‘부시의 보복 시나리오’, ‘미, 아프간 공격 임박’ 등의 헤드라인을 군사적 보복에 대한 도덕적 평가 없이 사용했다. 또 양 신문이 모두 외국 지도자들의 지지 성명을 집중 보도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주축으로 하는 탈레반 정권 등을 위협한 테러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보복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대적 공습이 시작된 이후에는 최신예 무기에 의한 전과, 전황 등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교전상대가 명확하지 않은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의 무고한 민간인 피해 등은 보도하지 않아 미국 정부의 인식과 같은 뉴스틀을 그대로 견지하였다.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가 미국의 공습, 필연적인 군사보복으로 사건을 귀결짓는 데 사용된 주요 기제들은 <표 5>와 같다.

<표 4> 사건의 해석에 사용된 주요 기제들

구분	뉴욕 타임즈	조선일보	인민일보
헤드라인	passengers had plan to thwart hijackers/ fellow Americans opening hearts, wallets and veins/ New York, New York, a city of triumph even as a city in pain/ grief, lessened by sharing and solace from strangers/ individual meals from the sky/ in streets of Pakistani cities, cries of 'death to America!'	대재앙 충격 덮고 수습나선 미 시민들/ 슬픔 덮고 '나라 지키자' 손 맞잡아/ 테러사고 현장엔 전국서 구호품 담지/ 테러 세력엔 미사일, 민간엔 구호품 투하/ 아프간 구호식량, 3만 7,500개 투하 팔레스타인 수천 명 공포 쓰며 테러 환호	온세계가 질책한 야만적인 행동/ 뉴욕 워싱턴 아직도 분노중이다/ 미국 테러사건에 대한 질책/ 미국, 영국 아프간에 새로운 전쟁 발동
사진	평화적 촛불추모행사/ 위협을 무릅쓴 구조대원들의 활동/ 지켜 잠시 잠을 청하는 구조대원 / 거리의 성조기 물결/ 아프간에 공중투하할 컨테이너를 옮기는 미국 요원들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환호하는 어린이들/ 황폐한 카불거리를 걸어가는 두 어린이의 뒷모습/ 성조기를 불태우는 파키스탄의 격렬 시위	미 텍사스대학의 촛불추모집회/ 구조대원들의 활동/ 순서를 기다리는 병원의 헌혈행렬/ 추모집회에서 무릎을 타고 성조기를 흔드는 여자아이/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식량 등 인도적 물자 지원작전을 설명하는 공군대령 팔레스타인 지구에서의 테러공격 추포/ 인도네시아 무슬림 단체의 자카르타 미 대사관 앞 시위/ 파키스탄 국경도시 퀘타의 시위대가 불태운 트럭 등 현장 사진	원거리에서 촬영한 붕괴현장의 구조작업 장면
지칭 용어 및 수식어	war is not on Islam terrorists, gnats, predators Bin Laden is distorting Islamic law single-minded killer	"진짜 미국의 본성을 드러낸 인간들은 불타 무너지는 세계무역센터속으로 뛰어들었던 3백 명의 소방관"/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테러 연속/ 라덴이나 조직을 배반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처단/ '문명'대 '야만'의 충돌	거대한 인원의 사망 초래/ 경악을 금치 못함/ 세계인들의 평화를 향해 도전하는 것/ 폐허에서 가끔 행운아들을 구조

<표 5> 사건의 귀결에 사용된 주요 기제들

구분	뉴욕 타임즈	조선일보	인민일보
헤드 라인	President vows to exact punishment/ Pentagon weighing plans for retaliation/ administration considers broader, more powerful options for potential retaliation/ World War III/ war is no longer an abstract idea/ for many, sorrow turns to anger and talk of vengeance/ from European leaders, support and resolve/ in Arab neighborhoods, support for U.S. Airstrikes	미, 범인 밝혀지는 즉시 전면 보복/ 미, 대대적 보복공격 태세/ 부시의 보복 시나리오는/ 미, 아프간 공격 임박/ 미 보복공격 대상 지목/ 탈레반 돕던 파키스탄도 “미국 지원 약속”/ “테러리스트와의 3차 전쟁 시작”/ 미 국민 “드디어 시작됐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참전 선언/ “제3국 확산 가능성”	미국 테러사건 계속 조사하다/ 프랑스 반테러 계획 가동/ 부시 TV에서 연설하길 미군이 아프간을 향한 공습을 시작하다/ 미국 국방부장 아프간에 대한 무력행사에 대한 것을 논하다. 전쟁의 목표를 아직 얻지 못하다/ 미.영 공습 20여명 평민 사망하게 조성/ 파키스탄 대통령이 표하길 공습할 때 “단기간과 목표가 있다”
사진	성조기 앞 부시의 대국민 담화 / 파월 국무,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의 발표/각국 정상들의 지지 성명/ 공격 직전의 항모 위 미사일/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 엔터프라이즈호의 무기 손질하는 미군들/ 공습 당한 탈레반 기지 위성사진 / 탄저균을 검색하는 FBI 요원들 비디오로 공개된 라덴의 모습	탈레반, 빈라덴 “끝까지 항전”/ 빈라덴 “무슬림 뭉쳐라” 심야 ‘성전’ 독려 각국 정상의 지지 성명/ 미 항공모함을 이륙하는 ‘호크 아이’레이더 정찰기/ 미 공습 직후 카불 상공/ 엔터프라이즈호에서 급발진되는 F-18기/ 미 전함에서 발사되고 있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인도 뉴델리 시민들의 빈라덴 모형 화형식/ 빈라덴의 비난 녹화 성명	공습 직전 난민촌에서 초조하게 라디오를 듣고 있는 부녀/ 미.영의공습개시 당시 뉴욕 한 상가에 걸린 평화 요구 현수막/ 파키스탄 서북부 아프간 난민촌의 남루한 행색의 아이들
지칭 용어 및 수식어	war against terrorism Bin Laden: child of privilege who champions Holy War/ a defiant Bin Laden	테러와의 전쟁/ 필연적인 경고/ 테러 악명높은 라덴/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적	미국, 영국의 아프간 공격 질책/ 군사공습 원하는 목표 획득할 수 없어/ 군사행동은 테러주의 해결 못해

이상에서 보듯이 미국 정부가 이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을 ‘antiterrorism’ 또는 ‘war against terrorism’으로 규정했는데 <조선일보>는

10월 8일 이후 공습관련 기사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부제를 달아 미국의 공식적인 시각과 같은 뉴스틀을 견지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물론 테러 직후와 달리 10월 9일자 '오피니언'면의 <해외 기고>와 <이규태 코너> 등을 통해 일부 미국의 대테러전의 무모성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역시 지배적인 뉴스 프레임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외교적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중국의 <인민일보>의 경우에는 테러 참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적 보복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뉴스틀을 견지했다. 이들은 '미·영 공습, 20여명 민간인 사망 하계 조성' '4명 연합국직원 공격에 의해 사망' 등의 헤드라인 제하에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상황 등을 주로 보도하면서 군사행동으로는 테러주의를 해결할 수 없다는 중국 외교부장과 러시아 외상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미국의 공습 이후 3일(10. 8~10. 10)동안 3건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2건이 파키스탄 북부 난민촌에서 초조하게 라디오로 아프간 사태에 관한 소식을 듣는 아버지와 어린 딸의 모습, 아프간 난민촌 어린이들의 남루한 모습이었으며 나머지 1건도 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시작된 날 뉴욕 상가에 걸려있는 "Give Peace A Chance"라는 현수막을 담은 사진이었다. 이처럼 중국의 <인민일보>는 미국의 아프간 공습에 대하여 <뉴욕 타임즈>, <조선일보>와는 현저하게 다른 뉴스 프레임을 구성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이데올로기나 외교적 이해관계에서 입장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지난 99년 코소보사태 당시 NATO측의 오폭으로 유고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이 폭격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피해 당사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및 논의

9·11 테러참사 보도분석 결과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가 국제 분쟁에 관한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자국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기사량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9·11 테러참사와 아프간에 대한 무력 공격과 관련 미국의 <뉴욕 타임즈>, 한국의 <조선일보>는 사건 발생 직후 거의 전 지면을 할애한 반면(382건, 192건) 인민일보는 단 32 건의 기사만을 보도 함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번 사건을 상대적으로 축소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야기 구성방식에서는 세 나라의 일간지 모두 원인과 배경에 대한 심층적 평가가 포함된 주제 진술적 프레임이 아닌 특정 사건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전하는 일화 중심적 뉴스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뉴스보도는 매우 선정적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보도량 자체가 적었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야 하는 주제 술적 프레임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 거의 전 지면을 할애한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 역시 주제 진술적 프레임이 적게 나타나고 일화 중심적 뉴스틀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번 뉴스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두 나라 일간지에서 일화 중심적 프레임을 채택한 것은 미국 테러참사의 책임과 원인을 역사적, 사회적 구조측면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미국 정부가 틀 짓는 대로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 정권으로 대표되는 일부 이슬람 과격세력들의 인류를 위협하는 잔학한 테러, 전쟁 행위로 규정짓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보다는 다른 매체들과 속보경쟁을 벌여야 하고, 전쟁과 테러관련 뉴스의 선정성에 매몰된 미국과 한국의 상업언론들의 흥미위주의 보도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런 보도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배제함으로써 사건을 특정방향으로 규정하고 평가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작업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뉴스 내용에 대한 프레임 분석결과는 각 국의 언론이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른 뉴스 프레임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좀더 명확하게 보여 준다.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는 9·11 테러와 아프간 공습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대로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전쟁행위', '문명 대 반문명의 전쟁' 그에 따른 '필연적인 미국의 군사보복과 응징'의 유사한 틀을 통해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무력공격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중국의 <인민일보>의 경우에는 9·11 테러와 관련해서는 중립적 시각에서 사실보도만을 하고, 미국의 공습과 관련해서는 무고한 아프간 민간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부각함으로써 그 무모함을 제기하는 현저하게 다른 뉴스 프레임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엔트만(Entman, 1993)이 제안한 프레임 기능과 관련 기술해 보면,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는 9월 11일에 있었던 미국의 동시다발적 테러참사를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이슬람 테러집단의 잔학한 전쟁행위로 특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미국과 이슬람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닌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 정권 등 일부 과격주의자들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이들의 행위야말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선에 대한 악의 공격, 문명에 대한 반문명의 위협으로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그 처방과 해결책으로 군사적 응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 언론이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간 공습과 관련, 지나치게 미국 편향적 시각에서 뉴스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테러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번

미국에 대한 사상 초유의 테러 행위의 이면에는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그로 인한 이슬람교도들의 축출, 걸프전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이슬람권의 부정적 시각 등 오랜 역사적 관계에서 누적된 이슬람권의 반미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역사적으로 왜 이들 무슬림들이 미국에 분노하며, 왜 이들은 미국에 대한 응징이 ‘테러’가 아닌 ‘성전’이라고 주장하는가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서 원인을 짚어보는 심층적인 주제 중심적 틀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 국내 언론이 미국의 군사보복을 기정사실화 할 당시에도 피해당사국인 미국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국의 패권주의가 부른 참사라며 군사적 보복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언론이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미 행정부 중심의 뉴스틀을 견지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사회 비평가인 노엄 촘스키 교수는 이번 사건 직후 “이번 테러사건은 무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의 강경 외교정책이 부른 산물”이라며 “성급한 보복은 세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이런 미국 중심의 뉴스 프레임 구성은 이번 사안과 관련 거의 대부분의 뉴스를 미국 언론과 정부가 제공한 데다 국내 언론의 특파원도 미국 등 서방 세계에 편중돼 있어 아랍 등 이슬람권에 대한 정보 수집력과 취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통적으로 이슬람권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 뉴스 생산자들조차 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 우리 나름의 ‘한국적 시각’이 상실된 편향적인 뉴스틀은 국민들의 국제적 사안에 대한 현실 인식과 해석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런 국제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슬람 세계에서도 지지기반을 갖지 못한 일부 극렬 세력과 세계 역사와 문화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을 동일시하게 된 것도 지난 50여년 동안 그들을 중동 분쟁이라는 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언론의 시각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파리 지국장을 지낸 바 있는 토마스 생크턴(Thomas Sancton)은 작년 11월 30일자 프랑스의 일간 <르 몽드>지에 실린 기고에서 9·11 테러참사 이후 미국 언론이 자기검열 체제에 빠졌으며, 미국 정부의 언론 통제와 미국 언론의 애국주의 캠페인을 통렬히 비난했다고 한다. 그의 지적은 곧 9·11 테러와 관련 미국 언론의 뉴스 프레임을 그대로 답습하다시피 한 국내 언론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테러참사와 관련, 지나친 의신 의존을 통해 미국적 시각의 뉴스틀을 견지한 우리 언론 보도는 결국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언론 통제와 미국 언론의 자기검열을 받은 셈이 됐다.

미국의 아프간 공습 이후 일각에서는 세계 인구의 3할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권에 대한 지식과 진정한 이해 없이는 앞으로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이번 미국 테러참사를 계기로 국내 언론들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의 뉴스 프레임의 종속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틀을 제공, 이슬람권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권에 대한 취재능력 함양을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특파원 신설 등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교류가 많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기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11 테러사건에 대한 미국, 중국, 한국의 주요일간지 뉴스보도를 비교분석 함으로서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뉴스보도가 어떻게 다르게 틀 지워지는가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비교분석 대상 신문이 3개국으로 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와 뉴스보도와와의 관계라는 큰 주제를 검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유럽권의 국가들과 이슬람권 국가들의 신문들이 함께 분석되었다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국제분쟁뉴스보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밝힐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창룡 (2001). 2001년 미국 테러사건과 한국 언론보도에 관한 연구.《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세미나 발표자료》, 153-177.
- 김훈순 (1998). IMF 체제의 경제위기와 텔레비전 뉴스 담론: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뉴스프레임을 중심으로.《방송연구》, 제46호, 138-165.
- 반현 (2001).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뉴욕 테러사건의 국내 TV 뉴스보도 사례.《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세미나 발표자료》.
- 양승목 (1997). 언론과 여론: 구성주의적 접근. 《언론과 사회》, 제17호, 6-40.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언론과 사회》, 제29호, 85-142.
- 이준웅 (1997). 언론의 틀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 제17호, 100-135.
- 정재철 (2001). 미국 대테러 전쟁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9시 뉴스를 중심으로.《방송문화연구》제13권, 257-278.
- 《미디어 오늘》, 2001. 9. 13.
- 《조선일보》, 2001. 11. 30.
- Adoni, H., & Mane, D. (1984). Media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Toward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11, 323-340.

- Berger, P., & Luckmann, T.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Doubleday.
- Boorstin, D. (1961).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N.Y.: Athenaeum.
- Chomsky, N. (1979). *Necessary illusion: Thought control in democratic societies*. London: Pluto Press.
- Cohen, B. C. (1963). *The press and foreign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owning, J. H. (1988). Trouble in the backyard: Soviet media reporting on the Afghanistan conflict. *Journal of Communication*, 38, 5-32.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38.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n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Y.: Harper & Row.
- Herman, E. S., & Chomsky, N. (1988).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N.Y.: Pantheon.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 365-383.
- Lippman, W. (1922). *Public opinion*. N.Y.: Free Press.
- Malinkina, O. V., & McLeod, D. M. (2000). From Afghanistan to Chechnya: News coverage by Izvestia and The New York Tim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 37-49.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55-75.

Paletz, D. L., & Vinson, C. D. (1994). Constructing content and delimiting choice: International coverage of KAL flight 007. *Argumentation*, 8, 357-366.

Schlesinger, P. (1991). Terrorism, the media and liberal-democratic state: A critique of the orthodoxy. In *Media, state and nation* (pp. 17-28). London: Sage.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최초 투고 2002. 3. 20, 최종원고 제출 2002. 4. 25)